

## 교회소식

- **살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변함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뉴욕주에서 코비드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웨체스터가 속한 미드허드슨 지역은 오는 화요일(26일) 제 1단계(건설 및 제조업) 업종들의 경제활동이 재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22일 미국대통령은 종교모임을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하고 이번 주부터 종교 모임을 다시 열게 할 것을 권했습니다.  
5월22일 뉴욕주지사는 목적에 상관없이 10명 이하의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교회 건물주인 연합감리교단에서는 6월 15일까지 교회 건물을 개방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떤 모임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광교회 당회는 본래 정한대로, 우리가 속한 미드허드슨 지역의 단계별 경제활동 재개방 상황에 맞춰 교회 모임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교인들의 예배 참석은 6월 중순, 제 2단계 업종들(소매업)의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된 후, 혹은 연합감리교회가 요청한 6월15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 때에도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 증상이 있는 분 등은 예배 참석이 불가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 인원과 방역 절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방침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31일)부터는 대표기도자와 반주자, 지휘자, 기술 지원 등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이 예배 진행을 돕습니다. 그 외의 교인들은 예배 참석이 불가합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북한공산당의 잔인한 탄압 가운데에도, 전쟁 중에도 교회의 예배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몸으로 함께 모이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나 당국의 제약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겪어보지 못한 비상한 사태 가운데 이 일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몸으로 모이지 못할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과 중보로 연합하며,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가는 것이, 다시 모일 때까지 더욱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일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상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의료 및 소방, 경찰, 정책 입안과 연구자, 그외 모든 필수 업종 종사자) 용기와 보호하심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 영육간에 자기를 돌아보아 지키고 씻고 튼튼히 합시다.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 말씀 묵상과 진솔한 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와 연락에 더욱 힘을 씁시다.  
- 성숙하고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법을 배우갑시다.

##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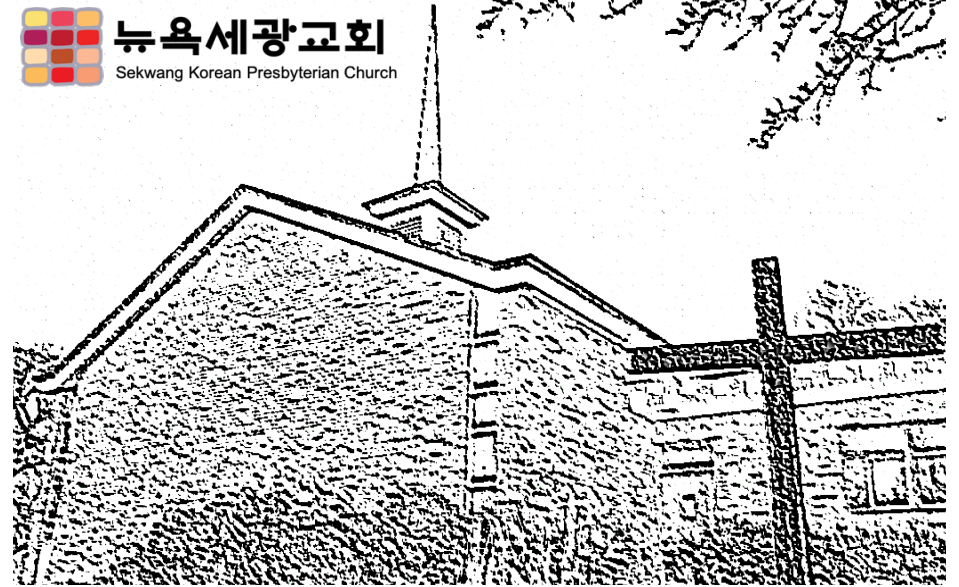
5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서영수 장로 (시편 104:24-34, 35b)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20호

2020년 5월 24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525장(통316장) “목마른 자들아” Come, Ye Disconsolate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5:13-16 Matthew 5:13-16
설교 Sermon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he Heart of Worship”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Romans 12:9-13 Leader
Sermon	“Lessons From This Ordeal”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 지난 주 주일 말씀

####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11-12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첫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복, 그 나라 국민들의 역할, 그 나라 사람들의 의와 신앙 생활, 사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팔복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위로와 참된 긍휼을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몫은 온유한 자에게 기입으로 주어집니다.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애통하고 여전히 가난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세상에서 위로 받고 힘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합니다. 위로하고 배부르게 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 시민 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팔복 중 앞의 네 가지는 “회개”와 연관되고, 뒤의 네 가지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연관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부하고 기뻐하고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 애쓸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임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말이 됩니다. 고상하지만 현실성 없는 꿈도, 결코 지킬 수 없는 더 엄격한 율법도 아닌, 실제로 임한 나라의 혜택과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가르침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말이 안되고, 괴팍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 들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어쩌면 평생 처음 진심으로 애통하고 목말라 하며 간구하십시오. 있는 척하며 스스로 꾸미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자 했던 세상의 부요함과 인정과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만족과 인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시기는 그 목마름을, 참된 만족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더욱 은혜를 간구하며 그럴수록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며 손해 볼지라도 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Memo>